

“3대 원칙 못 지키면 평동지역 도시개발 안한다”

이용섭 광주시장 3원칙 재확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중
난개발 차단 주택정책 준수 당부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산구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 3대 원칙을 제시하고, 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6일 화요일 오후 1시 “최근 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나온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합리적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이 제시한 ‘3대 원칙’은 ▲광주 발전과 시민 이익에 부합 ▲한류문화콘텐츠 거점 조성이라는 사업 목적에 맞는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확실한 참여 보증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아파트 세대수 건립 등이다.

광주시는 지난 3월 4조원대 규모로 추정되는 광산구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선정할 상태다. 컨소시엄에는 호반건설, 중흥건설, 제일건설, 우미건설, 스카이이레본, 케이비증권, 현대차증권이 참여했다.

컨소시엄은 ‘한류 문화콘텐츠를 만들고, 체험하고, 공유하는 복합 플랫폼 도시 조성’을 콘셉트로 1만5000석 규모 공연장, 스튜디오, 교육·창업 지원 시설 등을 21만㎡ 부지에 설치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컨소시엄이 제시한 사업비는 부지 조성비(1조46억원)와 전락산업 시설 건설비(8052억원)만 1조8098억원으로, 아파트 등 건설비까지 포함하면 4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60일간 컨소시엄과 구체적인 협상을 벌인 뒤 협약 체결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불가피한 프로젝트인 탓에

평동 개발 3대 원칙

- ① 광주발전과 시민 이익에 부합
- ② 엔터테인먼트 회사 참여 보증
- ③ 시민 공감 수준 아파트 세대수

지역사회의 시선은 굽지 않는다.

실제 사업 공모 과정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의욕이 제기돼 이용섭 광주시장이 직접 나서 “아파트 숲으로 조성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광주시는 친환경성, 난개발 방지 등 내용을 지침에 담아 재공고했다. 계획상 부지 비중은 아파트(5000여세대) 17.2%, 전락산업 시설 15.2%, 주상복합(3000여세대) 8.1%, 상업 시설 3.1%로 설정됐다. 나머지는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 부지다. 이 시장은 또 무분별한 고층아파트 위주의 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정책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30층 이하, 복합건축물 40층 이하의 높이 제한을 뒷받침할 기준을 마련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종상향을 전제로 한 신규주택사업의 용도변경 불허, 개정 주택법에 따른 무분별한 조합설립 차단,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주거시설 용적률 축소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 주택공급을 수반하는 개발 계획에 대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등 엄격한 공급관리를 통해 향후 공급 과잉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 밖에도 광주의 미래가 걸린 인공지능(AI) 집적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성원해 주셔야 수도권과의 치열한 AI 산업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최근 근거 없는 의혹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 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격정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경청하되 근거 없는 사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정세균 총리 내주 사의 공식 표명 가닥 보선 결과 따라 후임 인선 영향 받을 듯

중동 방문 마치고 대통령에 사의
추후 개각·정국 구상 도움 판단

여권의 잠룡으로 꼽히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르면 내주에 사의를 공식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총리 후보로는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과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박지원 국정원장 등이 거론되지만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5일 여론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시기가 문제였지만 정 총리가 중동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다음 주 중이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전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조만간 이란에 억류 중인 한국 선박 ‘한국케미호’와 선장의 석방 문제를 직접 매듭짓기 위해 이란을 방문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지난해 연말 퇴진설이 나왔으나 코로나19 재확산과 4·7 재보선 일정 때문에 사퇴를 미뤘었다. 하지만 재보선 결과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찌감치 거취를 정리하는 것이 문 대통령의 추후 개각 및 정국 구

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가 사퇴 결심을 굳힘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후임 하마평이 이어지고 있다. 일단, 문재인 정부 들어 이낙연 전 총리와 정 총리 모두 호남 출신인 만큼 ‘비(非)호남 인사’에 무게가 실린다.

우선 대구 출신으로 지역통합 이미지를 가진 김부겸 전 장관에 대한 여론 내 추천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대중(DJ) 정부에서 청와대 복지노동수석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이태복 전 장관도 거론된다. 이들 외에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 등도 거론되고 있다. 또 임기말 최대 과제인 코로나19 경제위기 수습 기조와 맞물려 경제 전문가가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후임 총리 인선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과 부산 두 곳 가운데 한 곳이라도 승리한다면 그동안 거론됐던 인사를 중심으로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반면, 두 곳 모두 패배한다면 후임 총리 인선 자체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영산강포럼 결성... ‘영산강 메가시티’ 논의 본격화

일대 국회의원·지자체장들 나서
대전공약으로 이어질지도 관심

‘호남의 젖줄’ 영산강 일대 지자체를 환경을 보존하면서 함께 개발하고, 상생·성장 동력으로 만드는 ‘영산강 초광역 메가시티’ 논의가 본격화한다. 특히 광주·전남도의 행정통합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비슷한 생활 여건을 공유하고 있는 영산강 일대 지자체와 정치권이 상생·발전 전략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영남에서 부산·울산·경남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대구·경북은 행정통합을 각각 내세워 수 조원대의 대전 공약을 발결하는 것과 달리,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별다른 대형 프로젝트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 영산강 일대 지자체들의 상생 논의가 대전 공약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이사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고민하고 구제

화 하는 ‘영산강포럼’이 최근 조직돼 오는 11일 사전모임 행사를 연다.

영산강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동남갑)·이병훈(동남을)·송갑석(서구갑)·양향자(서구을)·조오섭(북구갑)·이형석(북구을)·이용빈(광산갑)·민형배(광산을)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과 이계호(담양함평영광장성)·서삼석(영암무안신안)·신정훈(나주화순)·김원이(목포)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4명이 참여한다.

또 이용섭 광주시장·김영록 전남지사와 임택 동구청장·서대석 서구청장·김병내 남구청장·문인 북구청장·김삼호 광산구청장, 강인규 나주시장·김종식 목포시장·유두석 장성군수·최형식 담양군수·구충근 화순군수·이상의 함평군수·김산 무안군수·전동평 영암군수 등의 단체장이 참여한다. 이 밖에도 영산강마한역사문화 관련 단체와 이들 지역 주요 시민단체 등이 포럼에 함께한다.

이들은 오는 11일 각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특정

지역에 모이는 ‘자전거 대행진’을 통해 영산강포럼 사전 모임을 가질 계획이다. 이날 사전모임에서는 영산강포럼 창립 결의 및 비전선포 등이 진행된다.

영산강포럼에는 영산강, 황룡강, 극락강, 평립천, 풍영정천, 광주천, 지석천, 고막원천, 함평천, 문평천, 삼포강, 영암천, 영암호, 금호호 등의 수계를 접한 지자체와 정치인이 참여해 ‘영산강시대’를 위한 정책연구와 개발·실천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영산강 일대 지자체를 묶는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대전 공약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민할 계획이다.

이용빈 의원은 “영산강은 과거 흑산도 등지와 연계된 주요 교통로였지만 현대화 과정에 환경이 훼손되고 개발이 소외된 지역이 됐다”면서 “영산강포럼을 통해 영산강 및 주요 하천 주변지역의 새로운 발전 구상과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18주년!!

2021년 신축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장성군 백양사 부근

명품 한옥 전원주택 매매

전통 한옥명장이 대목장이 건축

- 대지 754㎡, 건물 142㎡
별도 담 704㎡
- 민박, 펜션 등 건축 가능
텃밭,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 가능
- 내부구조 : 방 3개, 거실, 욕실 2개
별실 민박 운영 가능
야외 평상, 야외 화장실 등
- 중앙관정 설치
→ 지하 150m 암반수 사용
- 500만~1천만원 상당의 조경수
→ 주택 가치 상승

매물 가격 : 12억원 (일부 조정 가)

위치 전남 장성군 북하면 단풍로 1959-7 면적 건물 142㎡ 대지 754㎡ / 441평 100평 ↑

상담문의 062)226-7501